

2021. 12.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 간담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공동주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이수진(비례), 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일시: 2021. 12. 22. (수) 오전 10시 00분

■ 머리말

“출신학교 차별, 청(소)년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가 12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력차별과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회 및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인권위와 더불어 소관 정부부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수능 날 청(소)년 단체 일동은 ‘입시 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고교·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수능 날, 청소년을 거리로 나서게 할 만큼 잔인한 입시 경쟁의 근간에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와 출신학교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교육 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채용 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21. 12.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축 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은 혜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강득구의원님과 이수진의의원님,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청년 대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문재인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의원님과 이수진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사회도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정부와 국회, 청년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논의를 위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21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비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얼마 전 올해 수학능력시험의 한 문제에 대한 정답처리 관련하여 이의제기와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한 문제의 처리 방향이 수 많은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행정이 정확해야 하겠지만, 이 상황의 이면에는 단 한 문제 차이로 당락과 학교가 달라지는 현실, 그리고 그 차이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크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학력차별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직접 학생, 청소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사자들이 학력차별의 현실, 청소년의 삶, 그리고 학력차별 금지의 필요성을 직접 말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생들은 지금 이순간도 학력차별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미래로 유예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강요를 거부하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당한 목소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님들, 강득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청소년, 학생 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한 축은 차별금지 역사이입니다. 저와 강득구의원님이 발의한 ‘고용-교육에
서의 학력차별금지법’ 은 그 역사의 길에 놓여 있는 작은 이정표일뿐입니다. 이 이정표
를 따라,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것을 감히 역사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꿈이 누군가의 잣대로 쉽게 재단 당하지 않는 나라. 지위의 높낮이는 있어도 인격
의 높낮이는 없는 나라. 경쟁을 넘어 연대의 정신이 넘실대는 나라를 위한 발걸음. 지금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진보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21월 22일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학력과 학벌 중심의 관행을 심도 깊게 진단하고 그리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청년 분들께서 청년액션이란 이름으로 제정 촉구를 위해 뜻을 모아주셨기에 오늘의 행동이 더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21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제 각각임을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정 방안 그리고 중장기 방안을 통해서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듭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유발, 임금의

격차, 대학서열화 등 파생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우리 청년들을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해 대입 과정에서 고교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그리고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적극 추진, 민간 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실시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점수배치표를 적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2개 사립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채용공고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그리고 심사 평가 상 학력 학위에 따른 배점 존재가 28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체조건 출신지역 그리고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 가족사항 수집관련 위반 총 22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저는 이수진의원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에 학력 출신학교 차별 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차별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그리고 악의적인 차별행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1월 22일

국회의원 강득구

■ 목 차

패널 발제

- 패 널: 심민기(출신학교차별금지법청년액션 공동대표) 11
“사회 내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관한 증언”
- 제 1 발제: 박주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15
“교육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의 필요성”
- 제 2 발제: 피아·공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0
“고용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의 필요성”

화답발언

- 제 1 화답발언: 최홍운(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37
- 제 2 화답발언: 편도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38

청소년·청년주체 발언

- 제 1 발언: 오시언(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39
- 제 2 발언: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41
- 제 3 발언: 김정래(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43
- 제 4 발언: 임정은(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44
- 제 5 발언: 이은지(청소년녹색당) 45
- 제 6 발언: 노서진(정의당 청소년위원회) 47
- 제 7 발언: 신은진(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49
- 제 8 발언: 김건수(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51

■ 패널

한국사회에 뿌리 박힌 출신학교 차별을 고발한다

심민기(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의 공동대표 심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지역캠퍼스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출신학교 차별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입시를 치르며 출신학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거나 한 경험도 없고, 아직 취업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출신 대학으로 인한 차별도 겪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출신학교 차별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제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1학년때부터 학생들 사이에 이미 대학 서열이 깊게 각인이 되어 있었고, 노골적으로 명문대 찬가를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한 선생님은 칠판에 대학 순위를 나열하여 적어 놓고 이를 외우라고 시킨 적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같지만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런 출신학교 서열에 익숙해지고 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가 조장하는 대학 서열에 꼭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길들여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도 계속 이를 의식하는 스스로를 보며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입시가 끝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대학에 가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와 보니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분교 캠퍼스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우리 학교 과잠(과 잠바)을 입고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고 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소위 ‘본캠’ 소속이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글에선, “학교 주변에서만 입고 서울에서만 입지 않으면 된다”는 반응과 “우리 학교 과잠인데 뭐 어머냐, 떳떳하게 입어라”는 반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의 반응이 모든 학우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 학벌 과시 수단이 된 ‘과잠’을 지적한 기사의 일부



(출처: “ ‘실패해서 온 곳’ 열등감, ‘편입 탈출’ 행렬”, <단비뉴스>, 2019년 8월 14일.)

이처럼 출신학교 차별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인간을 서열화하고 체념하게 만든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복학왕의 사회학> 저자 최종렬 씨는 이를 “성찰적 겸연쩍음” 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소수의 ‘승리자’ 만이 살아남는 입시경쟁이 우리를 할퀴고 나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패배자’ 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이 계속 영향을 미쳐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조차 접어버리게 되는 ‘점연찍음’ 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마저 학교 서열에 따라 떼땃해지거나 움츠러들게 되는 현실을 보며, 출신학교로 사람의 모든 가치가 환원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역캠퍼스 차별 문제를 다룬 기사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캠퍼스 간 혹은 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옮길 수 있는 전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본캠’ 학생들이 분교 캠퍼스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써가며 이 제도를 통해 전과한 학생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서 한 언론사는 캠퍼스 간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목에 ‘본캠’ 학생들이 분교 캠퍼스를 향해 사용하는 멸칭까지 써가며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댓글엔 오히려 공격받은 분교 캠퍼스 학생들을 비난하는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울캠퍼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제껏 쌓아온 모든 노력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출신학교를 둘러싼 서열화와 차별 문제는 단지 지역캠퍼스 차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명문대와 나머지를 나누는 도식, 인서울과 지방대라는 도식, 고졸과 대졸이라는 도식 모두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치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출신학교 서열은 또 끊임없이 소외당하는 존재를 만들어 냅니다. 출신학교 차별은 ‘학벌자본’ 을 얻지 못한 다수에게 패배주의를 내면화시킵니다. 이처럼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경쟁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한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수도 없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차별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공기처럼 익숙해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 차별의 고리를 들춰내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학벌로 존재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가 아닌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디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발제

교육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의 필요성

박주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I. 들어가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11월 초·중·고교 청소년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교육공약 설문 결과 응답자의 82.8%,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입시 경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설문 응답자 중 89.6%가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68.9%는 성적·학업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적·학업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실패한 삶에 대한 두려움’(57.7%), ‘친구와 경쟁해야 하는 고통’(36.9%), ‘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26.6%)을 꼽은 이도 상당수였습니다.

한편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리는 2021년 수능날 아침, 불평등 심화와 억압적인 교육을 반대하며 입시경쟁폐지를 주장하고자 거리로 나선 여러 청소년인권단체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이를 해결하고자 주체로 나선 청소년활동가 모두 한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시 경쟁 반대, 대학 서열화 해소, 학력 차별의 철폐입니다.

사교육걱정에서는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돌입하여 2017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의무화, 2019년 출신고교 블라인드 입시 등 소정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서열은 공고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에 대한 목마름은 청소년들의 삶을 입시경쟁이란 사슬로 묶어매고 있습니다. 본 발제에서는 교육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II. 교육영역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1. 입시 영역의 출신학교 차별

영역	항목	배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자기소개서 평가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	6	5.5	5	4.5	4
	되고 싶은 법률가의 모습	6	5.5	5	4.5	4
	총괄평가(구성의 체계성, 내용의 논리성, 글의 완성도 등)	8	7.5	7	6.5	6
		上	中		下	下下
서류종합 평가	성실성	70	63	56	49	42
		SKY법비법, 의치한, 과기원, 포항공대, 경철대	이화, 연세, 고려, 한양,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법학	기타 법학	기타 비법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가능성	70	63	56	49	42
		전공A+상(70점)	전공A0F(67점) 전공B+상(63점)	전공B0F(60점) 전공C+상(56점)	전공C0F(53점)	전공D이하
	적성 및 자질	35	31.5	28	24.5	21
			LEET 140이상	LEET115이상	LEET90이상	LEET90미만
전문소양	25	22.5	20	17.5	15	
	자격증(의사,변리사,회계사) *언어Excellent	자격증(노무사,법무사)	자격증無			
			병역미필27세이하 병역필30세이하	병역미필31세이하 병역필34이하	병역미필35세초과 병역필38초과	
합계		220	198.5	177	155.5	134

출처: 한겨레신문,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 2016.6.3

2014학년도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평가에서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출신학교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후 배점을 달리했습니다.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입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교육 관련 100대 국정과제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라는 과제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등 전형의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만 블라인드를 할 경우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입 수시나 대학원 입시에서 응시인원의 상당수를 걸러내는 서류전형은 학력·학벌에 대한 편견이 작동할 수 있는 일차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수도권 로스쿨 13곳의 입학생 2천929명 중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82명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로스쿨 입시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항목에 여전히 출신학교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블라인드 면접 도입으로는 고질적인 출신학교 차별 양상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2019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특정고교 유형 우대 정황 존재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학종에서 고교정보를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처리하던 것을 대입전형 전체, 면접과 서류평가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1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공성 강화

①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20~)

○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면접 → 면접, 서류평가)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 차단

그 동안 국민들은 대학 입시에서 특정 고교가 우대받는 소위 고교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019년 학종 실태조사 결과,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를 탑재한 고교프로파일의 정보의 양과 질의 격차, △편법적인 고교프로파일 정보 제공, △전형 시 고교정보 활용이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와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출신고교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다른 전형 대비 특기자전형의 경우, 외교·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합격자가 큰 비중 차지

※ (A대) 인문학·사회과학인재 : 4년간 총 합격자 1,838명 중 외교·국제고 758명(41.2%)
 과학공학인재 : 4년간 총 합격자 819명 중 과고·영재고 517명(63.1%)

※ (B대) 국제인재 : 4년간 총 합격자 937명 중 외교·국제고 638명(68.1%)
 과학인재 : 4년간 총 합격자 898명 중 과고·영재고 634명(70.6%)

○ 일부 대학의 경우,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소제)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음

※ A대 국제계열 : 4년간 총 합격자 1,615명 중 505명(31.3%)

※ '20학년도 이후 특기자전형을 전반적으로 축소 중(2개 대학 '21학년도 254명 선발 예정)

출처: 교육부, 2016 ~ 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9.11.5.

이러한 심각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Q&A를 통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

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삭제하여 출신학교의 영향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신학교 정보를 가리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삭제했다는 것이 다른 경로나 정보로 특정학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대학들이 출신학교 정보를 가렸으니 어떤 특정학교를 우대해도 이것은 의도가 없는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학교에 대한 편견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지금의 불공정한 입시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공시를 확대해서 전형 유형마다 고교유형,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 대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해 일반고 151개 고3 교사 및 진학부장의 62.8%가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 2021) 이렇듯 학교의 간판효과를 없애고 개인이 노력한 만큼 평가받는 공정한 입시를 정착시키며, 특정 학교 우대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입시를 법제도화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3.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2018년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나 포스텍, 의.치.한.의대 등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1000만원~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정대학 및 학과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구분	분야별 증빙서류	공통서류	
초·중·고등학생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 대회 입상 성적증명서 후 학교장 원본대조필	○ 장학생 지원서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후 별지 서식에 의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발급)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우수자 관내고교진학 장학금	○ 중학교 내신 백분위가 기재된 석차 연명부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생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 자격증 후 학교장 원본대조필	
대학생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 최종등록대학 납입고지서 ○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구분	분야별 증빙서류	공통서류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대학에 진학하거나 수능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으로, 지급은 1회에 한함 ◇ 탐구과목은 2개 과목 평균과목, 수능성적 등급 산출 ◇ 합격시는 수능성적 등급 합산 시 제외 ◇ 우수대학 진학 기준은 대학별 편모에 한정	
	○ 서울대	○ 장학금: 1천5백만원
	○ 고려대, 연세대	○ 장학금: 1천만원
	○ 의예과(의학과, 의약부, 의과대학)	○ 장학금: 3백만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장학금: 5백만원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 장학금: 5백만원
	○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 장학금: 5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3이내	○ 장학금: 6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4이내	○ 장학금: 5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5이내	○ 장학금: 4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6이내	○ 장학금: 3백만원
	○ 수능성적 2개영역 합이 4이내	○ 장학금: 2백만원

출처: 2020년 의령군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금 종류	대상자	지금액 (천원)	비고
영문대 입학 장학금	대학생(신입생) - 관내 중고 졸업생	10,000	생활비
	대학생(신입생) - 관내 고교 졸업생	5,000	생활비
충남도립대학교 입학 장학금	대학생	1,000	생활비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1등	3,000	생활비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2등	2,000	생활비
	관내고등학교 상위10% 이내 입학	1,000	생활비

장학금 구분	지원 범위
일반 장학금 (신입생/재학생)	- 2·3년제 대학생 및 4년제 이상 대학생 최대 400만원 이내(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학비 범위 내 지원(학비 범위 내 타 장학금 수혜 가능하며, 타 장학금 수혜 시 제외할 금액만큼 지급)
	생 활 (신입생/재학생) - 최대 300만원(1학기 150만원 / 2학기 150만원)
특별 장학금	대학진학우수 (신입생) - 1,000만원(1학기 500만원 / 2학기 500만원)
	지역대학입학 (신입생) - 200만원 × 1회
	지역고교 입학 - 관내 고교 입학시 300만원 또는 100만원(2020년 1학년) - 2·3년 재학생 매년 100만원 지급(만, 직전학년 내신 성적 2등급 이내 유지자(9등급제 내신 성적기준))
	성적우수 (고등학교2~3학년) - 100만원 × 1회
예체능	개인전 - 국제대회 금 300만원, 은 200만원, 동 100만원 - 전국대회 금 100만원, 은 70만원, 동 50만원
	단체전 - 국제대회 금 200만원, 은 150만원, 동 100만원 - 전국대회 금 80만원, 은 50만원, 동 30만원

출처: 2020년 (좌)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우)완주군애향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그리고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 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가. 특정대학교 및 특정학과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또한,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기 보다는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입하게 되면서 초·중·등 교육은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되며, 대학 간 서열화 및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 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의견표명 결정문

경북 울진군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입학자들에 대한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외국대학 진학자와 수능 성적 평균 1.5등급 이내 대학입학자까지 더해 특권적 장학금 수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게다가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본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고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하여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외고를 포함,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재학생(졸업생)을 특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철저히 입시결과와 학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지 원 기 준	인양 지원액	비고
①우수대학 입학	• 우수대학 입학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및 의과계열(의예, 치의예, 한의예) 대학 입학자	4,000	관내 관외
②수능성적 우수	• 수능 성적 평균이 1.5등급 이내인 대학 입학 자	4,000	관내 관외
③글로벌 인재	• 관내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이 상위 10%이내 인 자 중 외국소재 대학 4년제 이상 입학자	4,000	관내

○ 선발기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을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울진군에 둔 자 - 2020학년도 선발대학 입학 예정자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 부모 모두 대상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공고일 현재 울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상학생이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 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관내에 없는 유형의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생) - 2020학년도 선발대학 입학 예정자

출처: 2020년 울진사랑특별장학금 신청 공고

특정 대학교 및 특정학과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열패감을 주며 대입경쟁의 결과만을 특화시켜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교육여건이 열악한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이유로 특정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합리적이라며 유지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우수한 인재 육성’ 을 위해 학벌 위주의 장학금 지급은 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부각시키는 ‘성적지상주의’ 와 ‘학벌주의’ 는 좋은

인재상을 국·영·수 성적 중심의 인재로 국한시켰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유능한 인재는 성적이라는 시험의 결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시험 성적이 좋은 구성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질, 적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곳을 채우며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지상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 중에 올린 아래 게시물입니다.

문1)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A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B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출처: 노컷뉴스, ‘전교 1등 vs 공공 의사’...여론과 동떨어진 의료계 여론전’

좋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그가 학교에서 몇 등을 했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게시물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직업 능력까지 탁월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성적지상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대해 여론 또한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걸로 몇 십년을 우려먹을 건지’ 라고 비꼬았고, ‘의사썩이나 되어서 환자에게 ‘전교1등’ 이었다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노컷뉴스, 2020-09-03)

의협은 이 게시물을 바로 내리고 사과하였지만, 이 헤프닝이야말로 지자체 장학재단이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전교 1등, 의대 등의 우수한 미래 인재가

어떤 관행과 인식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학벌주의라는 괴물이 우리 사회의 인재상을 어떻게 획일화시키고 왜곡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4. 학교와 사교육 기관의 진학 실적 현수막

2016년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 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학벌 차별 광고수단 자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및 사교육기관은 아직도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사 중 한 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21년 지금까지

꾸준히 대학들을 줄 세우는 대학평가를 발표하여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언론사라 특정할 수도 없이 수많은 언론들은 연예 부문 기사를 보도할 때조차 특정 연예인의 고학력, 출신대학을 강조하는 자극적 방식의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교사 입학 추천 대학
1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고려대(서울)	1 서울대
2 서울대	2 연세대(서울)
3 연세대(서울)	3 고려대(서울)
4 성균관대	4 성균관대
5 중앙대	5 한양대(서울)
6 한양대(서울)	6 서강대
7 경희대	7 중앙대
8 서강대	8 KAIST
9 경북대	9 경북대
10 부산대	10 포스텍
11 건국대(서울)	11 서울시립대
12 서울시립대	12 이화여대
13 포스텍	13 한국외국어대
14 인하대	14 UNIST
15 KAIST	15 건국대(서울)
16 한국외국어대	16 GIST
17 동국대(서울)	17 동국대(서울)
18 이화여대	18 홍익대
19 단국대	19 부산대
20 전남대	20 경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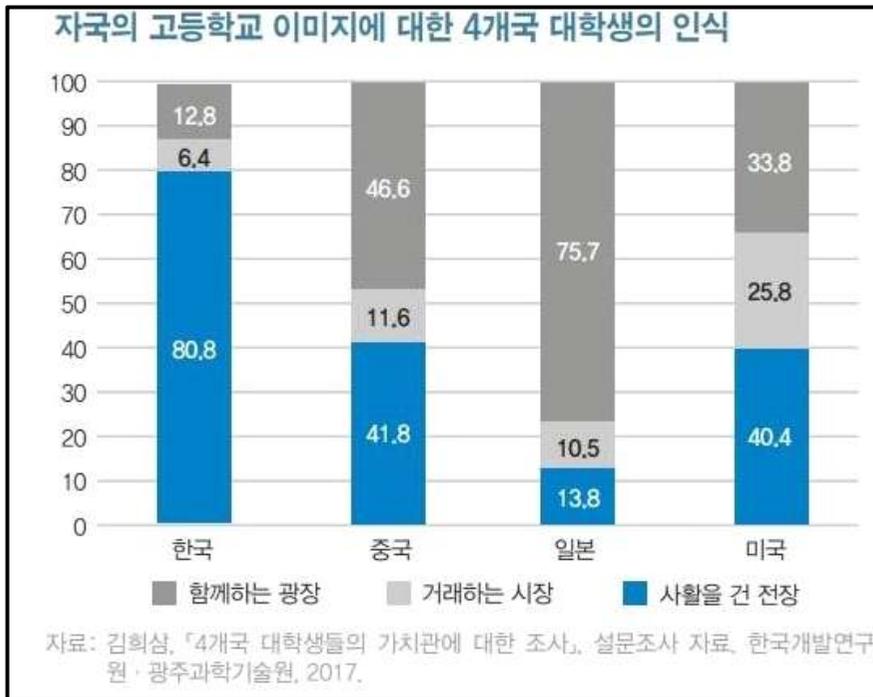
※중앙일보 평가 대학 51개 대학 기준, 응답수 많음 순.
 ※조사대상: 기업계 400명, 교육계 400명, 학부유 1000명, 총 1800명

The Joong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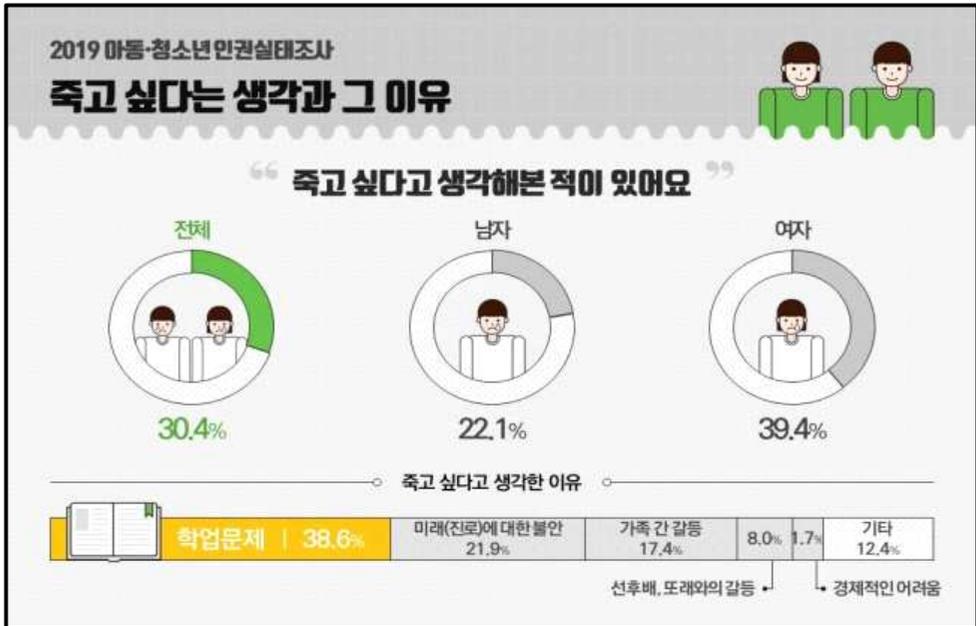


6.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와 학벌 위주 사회 개선의 필요성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한국은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이 80.8%로 나타났습니다(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 이는 우리와 비슷한 입시 제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미국(40.4%)이나, 우리보다 입시 경쟁이 비슷하거나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중국(41.8%), 일본(13.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입 경쟁으로 인해 중등 교육의 왜곡이 한계를 넘어섰음을 나타내며 더 이상 초중등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의 영향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가 학업 문제 (38.6%)인 통계에서도 나타나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러한 과도한 입시 경쟁은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체제의 상층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늦출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보고서

지난 2019년 교육부가 개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0%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게 해당 조사 결과의 의미입니다.

(단위: 명(%))

초·중·고 교육 내실화 과제	2019		2018		2017		2010		2008	
	전체	초중고 학부모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1,078 (27.0)	214 (25.7)	594 (29.7)	141 (27.8)	607 (30.4)	151 (31.7)	394 (26.3)	144 (26.2)	321 (26.8)	132 (23.5)
대입 선발 방식 개선	639 (16.0)	176 (21.1)	300 (15.0)	82 (16.1)	270 (13.5)	75 (15.8)	335 (22.3)	130 (23.6)	238 (19.8)	118 (21.0)
교원의 전문성 제고	698 (17.5)	151 (18.1)	363 (18.2)	101 (19.9)	334 (16.7)	79 (16.6)	480 (32.0)	188 (34.2)	357 (29.8)	182 (32.4)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600 (15.0)	102 (12.2)	607 (30.4)	151 (29.7)	652 (32.6)	141 (29.6)	-	-	-	-
수업방식의 다양화	779 (19.5)	149 (17.9)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89 (4.7)	39 (4.7)	123 (6.2)	30 (5.9)	125 (6.3)	28 (5.9)	176 (11.7)	56 (10.2)	211 (17.6)	96 (17.1)
기타	17 (0.4)	2 (0.2)	13 (0.7)	3 (0.6)	12 (0.6)	2 (0.4)	2 (0.1)	1 (0.2)	0 (0.0)	0 (0.0)
고등학교의 유형을 다양화 한다(2017 이후 제외)	-	-	-	-	-	-	113 (7.5)	31 (5.6)	73 (6.1)	34 (6.0)
계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508 (100.0)	2,000 (100.0)	476 (100.0)	1,500 (100.0)	550 (100.0)	1,200 (100.0)	562 (100.0)

출처: 2019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Ⅲ. 나가며,

다양한 경로의 여론조사 결과들 모두 한결같이 한국 교육의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학력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차별적 폭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이 존엄성의 가치를 기반하여 평등함을 인정받는 사회라면, 학력,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리함이나 열악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계급화 되어버린 출신학교,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신분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오늘도, 현재의 행복할 권리를 유예당한 채 과도한 학습노동과 학업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학벌·학력 위주의 사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넘어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출신학교가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입시, 채용, 고용 등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미 사회 전반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가 깊아서 터져야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파편적으로 수립할 것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21대 국회 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합니다.

■ 제2발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용 영역에서의 학력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멈춰세우기

피아 · 공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고3 수능 날, 나의 삶을 유예시키고, 주변인들과 끊임없이 경쟁할 것을 요구하며, 입시의 결과를 이유로 등급을 매기는 교육과 사회에 불복종을 선언하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청소년이 사람답게 살 권리와, 사회에 존재하는 대학비진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11명의 거부선언자들의 외침에도 뭐 하나 제대로 바뀐 것 없이 벌써 4년이 지나갔다. 여전히 수능철만 다가오면 잠깐씩 거부선언자들을 찾는 몇몇 인터뷰들은 선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궁금해한다. 그럴 때 나는 “뭐 그리 다르게 살고 있겠냐, 힘들 때도 있고 좋기도 하고 그렇다.” 하고 넘기곤 했다. 그런 질문에는 내가 조금은 후회하고 불행하기를 바라거나, 좀 더 특별한-열정적인-무언가를 바라는 은근한 속내가 느껴질 때도 있어서 더 열심히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알고 있다. 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마냥 기대만큼 순탄하지만은 못하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비진학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불행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로 자꾸만 향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 이후 나는 바로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나의 삶의 주 관심사이자 동기는 사회운동이었다. 활동을 하며 생계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금 노동을 해야 했

다. 활동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노동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보니, 장시간 서있는 업무임에도 의자 하나 없고, 밥 먹을 공간도 시간도 없어 밖에 나가 서서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일터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주 바뀌는 일정과 같은 상황들이 자꾸만 닥쳐왔다. 알바 노동자를 존엄한 노동자로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환경들과 나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대체품 정도로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나, 정규직 매니저들의 노골적인 하대를 맞닥뜨려야 했다.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했던 알바 노동이 오히려 나의 건강과 존엄을 소모시켜 활동을 더 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나는 여기저기 알바를 전전하는 일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K.O.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활동이나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너무 혹사당하지 않는, 무엇보다 일정이 너무 들쭉날쭉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일터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비교적 안정적인 일터들 중에 중졸에 어떤 자격 증조차 없는 여성인 나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 직장에서 구인하는 업무가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필수로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와는 관계없이, 구인 공고에는 대부분이 “대졸” 이 기본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학력 무관” 이라고 기재해 놓은 곳조차 면접에 가서는 “당연히 대졸을 고려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며 거절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규모가 있는 회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원서도 작성할 수 없었다. 애초에 나에게서는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동과 같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안정적이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일터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계층화된 일자리

내가 경험한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현실은 각종 통계 자료에도 선명하게 드러난다.¹⁾

먼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 고졸 학력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명백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취업률 자체로만 보면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업 사이에 별 차이가 나지 않

1) 아래 통계 분석은 투명가방근에서 함께 진행하여 2019년 12월 발표한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면접조사 :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 정리했다.

는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 노동 조건을 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

우선,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 형태는, 고졸 청년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가 17.6%로 대졸 청년에 비해서 이러한 이러한 고용 형태가 11%p 더 높은 등 단기/일시적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아가 현재 일자리에서의 지위를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 중 74.1%, 대학 졸업자 중 77.6%는 ‘상용 근로자’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45.3%만이 상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임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고졸 청년 비율은 36.0%로 전문대졸 및 대졸보다 2배 이상 높다. 고졸 청년 중 ‘일용 근로자’ 역시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약 4배, 대학 졸업자보다 약 8배 많은 비율을 보이며,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 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서 높은 분포를 보인다.

현재 일자리에서 하는 일의 형태는, 4년제 대졸 청년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1.0%로 가장 높았고, ‘사무 종사자’(35.0%)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전문대졸 청년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0.3%), ‘사무 종사자’(21.0%), ‘서비스 종사자’(13.5%) 순이었다. 끝으로 고졸 청년은 ‘서비스 종사자’(23.3%), ‘판매 종사자’(16.7%), ‘단순 노무 종사자’(14.3%) 순이다. 사실상 학력에 따라서 전문직과 사무 종사자는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차지하고, 서비스, 판매, 단순 노무 등의 일자리는 고졸 학력이 차지하는 식으로 뚜렷이 계층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소득에도 반영된다. 첫 일자리에서의 월급 분포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35.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6.8%), ‘100만 원 미만’(26.0%) 순이었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41.2%),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29.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17.4%) 순이다. 반면 대학 졸업자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8.2%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서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고졸 청년은 11.8%뿐인데, 대졸 청년은 32.6%에 이른다.

통계로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학력 차별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 투명가방끈에서 가졌던 대학거부자/대학비진학자 수다회에서 노동에서의 차별, 특히 일터에서의 명백한 차별 사례가 없는지

물었을 때, 그런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양극화, 이중화된 고용 구조 속에서 애초에 취업 단계에서부터 학력에 따라 입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달라지는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보통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있는데 달리 대하는 것을 차별로 체감하고, 법적 의미에 차별도 그런 식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고졸과 대졸은 애초에 같은 조건이나 상황에 놓이는 일이 별로 없고, 처음부터 기회가 달리 주어지는 것이다.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을 때, 조건을 고졸로 놓고 검색하면 대부분이 월급 100만 원대의 일자리가 나오고, 대체로 단순 노동이나 사무 보조나 서비스직이다. 반면 조건을 대졸로 놓고 하면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일자리도 많고 훨씬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온다. 그중 상당수는 사무 업무나 관리 업무 등 대학에서 무언가를 배웠는지 여부는 별 상관도 없는 종류의 일들이고, 또 대다수는 학력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훈련 받으며 배워야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다. 그럼에도 대졸 학력은 정규직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통과 자격증처럼 쓰인다. 즉, 대졸 학력이 합리적 이유 없이도 인성이나 사회성, 인간의 가치 등에서 일종의 ‘기본’ 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학력에 대한 차별은 채용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학력에 따라 최소승진연한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인사규정에 주임급(G4b)이 대리급(G4a)로 승진할 경우, 최소승진연한을 대졸자는 5년 고졸자는 9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고졸자가 대리로 승진하려면 대졸자와 달리 4년 이상을 더 주임직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의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필수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승진 시 고졸자와 대졸자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다. 동일한 업무와 역할을 한다면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승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사례는 채용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가 필요한 이유다.

여기서는 주로 대졸자와 비대졸자를 차별하는 고용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았지

만, 대졸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편파·차별 채용을 하다가 논란이 된 사건도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력,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전반적 능력과 사회적 ‘등급’을 결정한다고 여기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학력에 따라 고용과 노동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학력으로 사람들을 줄 세운 결과 가장 뒷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 고졸 이하, 비대졸자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영역에서 합리적·필수적 이유 없이도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믿고 차별이 이어지는 이상,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얻기 위해 더 이름값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노동 영역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비대기업을 나누고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중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학력 차별의 굴레에 제도적인 선이 필요하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출신에 따른, 학력에 따른 차별의 굴레를 바꾸는 법이 될 것이다.

■ 제 1 화답 발언

최홍윤(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 제 2 화답 발언

편도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 제1발언

오시언(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학생인권자치연구소장)

안녕하세요. 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을 대표하여 발언을 맡은 오시언입니다. 우선 공동주최를 제안해주신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든’ 또한 사회에서의 학력 차별과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우선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문장은 모든 법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최고법인 헌법 제11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좀만 들여다보면, 헌법 준수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논어의 구절 중 하나인 ‘균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이 학력 차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나오는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수의 의견이 옳다면, 그 의견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해보자면, 학벌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된 이들에게 ‘동(同)’ 의 원리로 다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화(和)’ 의 원리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으로는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명분으로 늘 차별에 찬성해왔던 우리 사회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목고와 일반고, 지방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등으로 구분하는 것만을 학력 차별, 학벌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 또한 현재 이런 차별을 받는 대상입니다.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는 비주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을 외면하였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대안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

려움이 공론화되기를 바래서입니다.

학벌 위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오늘의 이 같은 간담회 진행은 곧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노력이 앞으로 학력 차별과 학벌주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발언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아수나로는 얼마 전 여기 계신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닌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반대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입시에서 대박을 바라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이 높은 불안감을 느끼며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학생 개인의 미래와 꿈을 위한 노력으로 미화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 경쟁률은 학생들의 학구열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며, 건강을 해쳐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나온 대학에 따라 사회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사회에서 높게 인정받는 대학 출신 사람과 낮게 인정받는 대학 출신 사람 사이이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한 사회에서 입시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진실을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은 이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는 무력감,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경쟁자들로 인한 불안 등을 이 사회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투정 정도로 가볍게 취급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차별에 대한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입시 구조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수험생들에게 힘내라는 수능 메시지만을 보냅니다. 국회의원, 정부 부처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 구조를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그러한 책임을 외면하고 이 모든 것을 그저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게으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능력을 입증하고 기득권 대학에 선발되어야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적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환대하는 사회라면, 어떤 성적을 가졌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이 사회에 마땅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학교 안의 만연한 성적 차별이 없어야 하고, 대학 평준화, 무상화 등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대학 국공립네트워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대학 무상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출신학교차별금지법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발언

김정래(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투명가방끈 활동가 김정래입니다. 학력에 따른 차별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청소년기 동안 각인받아왔습니다. 어느 대학 ‘아래’ 대학을 진학하면 사람도 아니라는 식의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소년에게 바로 그 어느 대학 ‘아래’ 라는 표현은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처럼 다가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런 비유 말입니다.

그런 비유 앞에 되묻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 대학에 가지 않은 비진학자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존재가 지금까지 어쩔 이렇게 지워져왔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력·학벌차별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학교 다니느냐는 물음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교육기관에서, 일터에서 들은 그 질문들은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습니다.

청소년기 동안에 학력학벌차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영향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확대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근무하던 모 지방 사립대학 출신의 교사를 놓고, 뒤에서 그 교사의 출신학교를 거론하며 수준이 낮다고 비하적인 발언을 일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청소년의 차별적 인식을 청소년의 탓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구조와 제도가 학력과 학벌에 따라 차별하는 인식을 만들고 키워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평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평균은 5등급’ 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산술적으로 학생들의 평균이 5등급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5등급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 1~4등급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자신들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회 전반을 낚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 평균은 소위 낮은 성적으로 일컬어지는 5등급이고,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5등급,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의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조와 제도는 사람을 선발하는 쪽, 즉 기업과 국가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 앞에 주어진 기업과 국가의 편익보다도 선발되는 대다수 사람의 편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그런 구조와 제도에 균열을 내는 첫 시도가 될 것입니다.

■ 제4발언

임정은(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 제5발언

이은지(청소년녹색당)

반갑습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이은지 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을 찾기위해 떠난 한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편하게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은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도 학력주의로부터 발생한 사회의 차별과 배척이 두려웠고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승자가 되는 현실을, 그리고 그래야만 흔히들 좋은 대학에 가게되고, 이 취업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기업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는 어떠한 인재 입니까? 금색 졸업의 목걸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원하는 겁니까? 출신학교는 그저 출신학교일뿐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아니한다는 걸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 그리고 균등한 취업의 기회는 약자라서, 혹은 출신학교가 유명하지 않아서라는 답도 없고, 답이 될 수 없는 차별적인 등용 기준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층들을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당해야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 층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그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이기는 승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다른이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제 역량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출신학교가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신학교로는 표현하지 못 할 만큼 값지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서, 출신학교만으로는 표현하지 못 할 그런 값지고 소중한 존재들을 위해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이 법안 하나로 모든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출발점, 혹은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청소년녹색당은 끝까지 함께 할 것 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출신학교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 활동가들을 보며 힘내고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 제6발언

노서진(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개미와 베짖이>를 아십니까?

모두가 잘 아는 이솝우화일 것입니다. ‘여름에 일하면 겨울에 편하다’, ‘여름에 남들 일할 때 놀면 겨울에 고생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솝우화입니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이 이솝우화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에 열심히 일하면 겨울에 편하다’고, ‘남들 일할 때 놀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 맞습니까?

한국의 개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합니다. 그러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열심히 일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디찬 겨울의 해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베짖이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베짖이들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놀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세습과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교훈은 ‘이상주의적인 소리’가 되고, 개미와 베짖이의 간격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이란 무엇입니까? 혹자는 본인의 학력과 학벌이 ‘개인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학벌은 노력의 산물이기에, 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분과 차별이 온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에 사회경제적 배경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나의 어떤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부에 ‘노력’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교육인프라는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혹은 우리 사회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 채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을 우리 사회는 능력이 없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누가 이 낙인을 만들었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는 이 비뚤어진 능력주의의 신봉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번 제출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하며 ‘학력 차

별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학력학벌 차별이 당연한 사회, 극한의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사회.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बे짱이를 위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낙인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우리 사회를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무한경쟁은 이제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학력학벌 차별의 끝은 양극화와 패배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의 역설일 것입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개미들도 부당한 낙인을 넘어서, 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개미와 बे짱이>, 이 아름다운 이솝우화를 시민에게 돌려줍니다.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 제7발언

신은진(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19살 신은진입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특성화고고 학생들은 졸업 이후 바로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학할 때면 머리가 나빠서 특성화고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사회에 나가선 나이가 어리다며 만만하게 보는 시선을 받습니다.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듯 '고졸'이라는 딱지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특성화고를 선택했던 과거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지금 이 사회를 과연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은 마치 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고졸과 대졸을 나누는 사회의 조건과 기준들은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성화고인데 졸업 이후 사회에 나가면 왜 우리를 고졸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일까요.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가 아니고,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하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계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후배들에게 특성화고 입학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일을 하며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경제적인 독립도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더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짧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고졸에 대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부터 학력에 대한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듣는 회사에 관한 수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분노스러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안타깝게도 차별을 겪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는 얼마 후면 제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길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졸이라는 단어가 차별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든 차별은 나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며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학력에 뒤따르는 배제와 혐오를 줄이고 고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제8발언

김건수(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필요합니다.

정부 대학 국고보조금 40%가 서울 10개 대학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60%가 20개 대학에게, 20개 대학 중 지역대학은 3개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출은 이제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한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재정지출부터가 학벌서열에 따라 차등지급 되면서 공적 재정이 오히려 공공성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넘어서, 정부부터가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기는 현실의 단면으로, 출신학교로 차별받는 청년을 위한 법적 대안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급성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일부 청년세대가 연호하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층사다리로 올라갈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라는 건, 계층사다리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이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정글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정신이라 말하는 정치권에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바로잡는 조치를 넘어서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성적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날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한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구조인 입시경쟁체제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교육으로의 전환, 즉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종합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학력의 차이가 곧 노동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노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낮은 서열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차별적 인식부터, 소수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

리를 부여하고, 나머지에게는 저임금 불안정 착취구조로 내모는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의 고민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시름 앓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시작조차 더더서 답답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날 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든 정치권의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시 간	순 서 (■패널·발제 ■화답발언 □발언)
10:00-10:10	개회사 및 축사
10:10-10:2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모두발언
10:20-10:3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퍼포먼스
10:40-11:10	■ 심민기(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공동대표) ■ 박주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피아·공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11:10-11:20	■ 최홍윤(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 편도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11:20-11:50	□ 오시연(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 치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정래(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임정은(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 이은지(청소년녹색당) □ 노서진(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신은진(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 김건수(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